



죽비와 목탁

이아은 기자

bohjung@buddhapia.com



불교호스피스協에 거는 기대

호스피스, 터미널케어라고도 불리는 임종간호. 불교에서는 2500여 년의 불교사와 함께 해 왔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죽음을 둘러싼 모든 문제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대처하는 지혜와 방법이 제시돼 있기 때문이다.

초기경전인 아합부의 <유행경(遊行經)>은 죽음의 수용, 고통의 완화나 증상완화, 환자와의 가족에 대해 응대하는 이상적 모습과 사후 처리 등의 문제를 부처님과 아난 존자의 대화를 통해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종교계를 중심으로 호스피스 활동이 시작됐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호스피스에 대한 뚜렷한 이미지는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불교는 생로병사를 어느 종교보다 진지하게 성찰하고 그 해답을 제시하면서도 그 실천법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임종간호에 대한 활동은 이웃 종교에 비해 미미한 실정이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이미 1991년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한국호스피스협회를 각각 설립했다. 20여 년이 지난 현재, 가톨릭은 48개의 호스피스기관, 개신교는 100개 기관을 각 협회에 등록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비해 불교계의 임종간호 전문시설은 정토마을 한 곳뿐이다. 교육기관은 아미타호스피스회, 환희불교복지대학, 영남보현자원봉사단 등 15개 기관 및 시설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착이 어렵고, 이 때문에 개종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불교계 최초로 호스피스활동을 전개해온 아미타호스피스회가 10월 11일 불자 호스피스 인력을 결집해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를 창립했다.

협회장 지현 스님은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워하는 이들을 정토로 인도하는 희망의 등불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뒤늦은 출발에 포교원도 지원을 약속했다. 포교원장 혜홍 스님은 "협회를 중단산하 단체로 등록하도록 힘 쏟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협회 설립에 늦은 감이 있다는 뒷말이 들린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르다고 했다. 환자를 돌보는 여래를 돌봄과 같다고 했다. 이웃 종교에 뒤처진 만큼, 인종을 앞둔 불자들에게 자비의 등불과 감로수가 되기 위한 발원을 더욱 세련게 했으면 한다.

천태종 명락사 다문화가정 지원 나서

11일 명락빌리지 개원... 중국·몽골 등 8가구 14명 입주

천태종 명락사가 국내 첫 다문화결손가정 재활센터 '명락빌리지'를 개원하는 등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 명락사주지 무원, 천태종 총무부장은 10월 11일 명락사 경내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들과 정관계 인사들 비롯한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락빌리지'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명락사 옛 수련관의 14개 방을 개조해 만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명락빌리지'는 가정폭력과 이혼 등으로 인한 다문화 결손·모자가정을 위한 주거교육시설로 법률상담과 한국어교육 등 적응교육과 직업교육 및 알선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재 입주한 중국·몽골·베트남인 등 8가구 14명의 가족들은 이곳에서 낯선 땅에서 파경을 맞은 아픔과 직장 등을 잃은 상처를 치유하게 된다. 향후 6가구도 추가 입주 예정이다.

이날 개원법회는 테이브 커티싱



10월 11일 서울 명락사에서 열린 명락빌리지 개원법회. 원내는 명락사 주지 무원 스님.

에 이어 △삼귀의례 △삼월원각 대조사 범어 봉독 △경과보고 △개식사 △범어 △축사 △발원문 등으로 진행됐다.

정산 스님은 범어를 통해 "명락빌리지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주지 무원 스님과 신도분들의 노고가 크다"며 축하했다. 이어 스님은 "삼귀유사 노닐부득과 달달박박의 설화에서 나오듯 어려운 이를 위한 자비심은 우리 모두를 성불의 길로 이끌 것"이라며 "늘어난 다문화

가정에 비례해 증가하는 피해여성 및 결손가정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한 불자들의 따스한 관심이 필요한 때"고 당부했다.

범어에 앞서 무원 스님은 "긴급상담전화나 일시보호소는 있지만 명락빌리지 같은 자립시설은 국내에 없었다"며 "명락빌리지를 시작으로 다문화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사말에 이어 감사원장 춘광 스님의 발원문 낭독과 각계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의정 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축사를 통해 "다문화 피해여성 등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내 첫 다문화화모자 가정 센터가 개원돼 더없이 기쁘다"며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외 김성식(한나라당)·김희철(민주당) 국회의원, 제재형 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맹 상임대표 등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참석 인사들은 명락빌리지를 돌아보며 거주 가족들을 격려했다.

한편, '다문화사랑'을 표방하는 명락사는 2월 무원 스님이 주지로 취임한 이후 '다문화 길상 기원등'과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한 만등(萬燈) 불사(佛事)'를 통해 관련 기금을 모연해 왔다. 명락사는 다문화가정예술제, 다문화청년합창단, 다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관련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지관 스님 퇴임식 30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퇴임식이 10월 3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린다.

조계종 기획실장 장적 스님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집행부는 32대 성과 및 과제를 짚는 자료집 발간과 4년간의 주요사업을 영상물로 제작하는 등 임기 마무리 작업을 차분한 가운데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장적 스님은 이어 "결계포살집은 첫 발행이기에 다소 늦어지고 있다. 원장스님께서 역사적 지요인 점을 감안해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시다. 한국불교사상사 변경도 영문화 관련으로 지연 중이지만 퇴임식 전까지 10권 전집 중 일부 마무리될 전망이다. 목동 국제센터 또한 민원관계로 지연 중이지만 임기 끝까지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고려인, 지관 스님 예방

조계종이 주최한 '중앙아시아 고려인 지도자 한국문화체험'에 참여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20명(총 39명 중)이 10월 14일 지관스님을 예방했다.

지관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전 세계가 한 집안이나 마친가치다'고 하셨다"며 "전쟁 때문에 조국을 떠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그곳에서 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그래도 조국을 마음에 품고 있어서 이 자리가 마련돼 기쁘다"고 종단방문을 환영했다.

박선주 기자

불교청소년지도사 연수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홍)은 10월 31일~11월 1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제2회 불교청소년지도사 연수를 실시한다.

불교청소년지도사, 파라미타 지도자 및 사찰 청소년법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종단 포교정책 및 종교연합 △종단과 사찰과의 연계방안 △지역 포교활동방안 △청소년 상담 및 지도 방법론 △지역별 모임 △지도사를 위한 특강 등을 교육한다.

접수는 10월 26일 오후 5시까지. 참가비는 무료. (02)2011-1903, www.buddhism.or.kr 이상언 기자

태고종 기관장 등 인사 단행

중앙초심원장 경담·중앙호법위원장 원묵 스님

태고종은 제24대 총무원 집행부 출범을 기해 각급 기관장과 총무원 실·부장 인사를 10월 15일 단행했다.

공석이었던 기관장인 중앙초심원장에는 경담 스님, 중앙초심원 부원장에는 성률 스님, 중앙호법위원장에 원묵 스님이 임명됐다.

이외 총무원 실·부장에는 교무기획실장 원명 스님, 재정지원실장 월담 스님, 교류협력실장 능해 스님, 문화종무특보 법현 스님, 교무부장 지해 스님, 재무부장 법경 스님, 기획부장 법운 스님, 사회부장 고담 스님, 문화부장 지허 스님, 규정부장 구산 스님, 교임부장 경보 스님, 종무위원 완월 스님, 종무위원 상하 스님, 무위 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이밖에 총무기관 부서장으로 중앙홍보원 홍보부장 혜철 스님, 중앙포교원 포교부장 원오 스님도 임명됐다.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15일 전통

문화전승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임명식에서 "실무역량과 애종심, 종단 내 위치 등을 고려하고, 지역별 균형과 행령에 맞게 전국 종무원 추천을 반영했다"며 "집행부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견마지(犬馬之勞)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원용화쟁회 창립... "종단발전 초석"

20여 교구본사 국장급·말사 주지스님 구성

조계종 각 교구본사 종진스님들로 구성된 '원용화쟁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지역 목소리 대변에 나섰다.

원용화쟁회(회장 만당, 백양사 기획국장)는 10월 16일 서울 조계사 극락전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원용화쟁회는 20여 교구본사 국

장급 소임자 스님들과 소임을 마치고 교구본사 말사 주지 소임을 보고 있는 스님들로 이뤄졌다.

원용화쟁회는 향후 △세계원용미래사 연구원 △원용미래복지재단 △불교문화연구원 △해의불교문화학교 △선불교 연구원 등을 설립하고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해 각 종단과 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원용화쟁회는 이날 "교구본사 중심제로 인해 지역불교계가 소외될 수 있는 등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며 "전원직 소임자 스님들이 각 분야별 추진경험과 선교방편을 교류, 상호지원해 종단의 발전을 이루는데 초석이 되겠다"고 밝혔다. 원용화쟁회는 결의문을 통해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해 상호비방과 금품살포 등 승승장구 행위 근절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인권위 불교인권상 후보자 추천받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는 '제15회 불교인권상' 후보자 추천을 11월 1일까지 받는다.

불교인권상은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고 다양한 영역을 넓히면서 소통하는 인권지킴이 역할을 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개인 또는 단체로 추천 대상자 공적평가기간은 1년(2008년 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이다.

추천 후보자의 제출서류는 접수 이메일(pencil56@emapl.com)로 받으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02) 734-6401 박선주 기자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 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정(正)의 '현대불교'를 이룩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달은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도서관, 관공서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 이상 월 구독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고선종대가람 황악산 직지사 제12회 대승보살계 수계대법회

법망경대승보살계본에 부처님께서 놓고 죽음은 지극히 가깝고 불법은 쇠하려고 하니, 모든 스님네들과 우바새와 우바이들은 심지대계(心地大戒) 보살계를 받아 도를 얻기 위하여 일심으로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간곡히 부촉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안팎이 하나가 된 지극한 마음으로 이 보살계를 받고 마음의 문을 열어 마침내 부처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 일 시 : 불기 2553(2009)년 10월 28일(음력 9월 11일) 오전 10시
- 장 소 : 직지사 만덕전(금강계단)
- 보 살 계 : 1인 30,000원
- 만등불사 : (1가족 1등) 10,000원
 - 접수처 :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번지 직지사
 - 전 화 : (054) 436 - 6013, 6862 • 팩 스 : 436 - 3174
 - 온 라 인 : 우체국 702829-01-000143(직지사)



大韓佛教曹溪宗 第八教區
本寺直指寺住持性雄合掌